

Moderator (David):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어로는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join us today. Before we begin, I'd like to briefly go over a few housekeeping items.

오늘은 스캇 윈터 유엔사 부사령관 부임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내신 기자 간담회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오늘 자리가 기자 여러분과 유엔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울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기간 유엔사와 임무와 역할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간담회 내용은 다음주 한미공동 UFS 브리핑이 있을 때까지 엠바고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So today's session marks LTGEN Scott Winter's first media roundtable with the Korean press since assuming his duties as Deputy Commander of United Nations Command. We hope today's discussion will be helpful for both you and UNC. So today's discussion will focus on UNC's roles and responsibilities during the upcoming Ulchi Freedom Shield exercise. As a reminder, today's discussion is under embargo until next week's joint UFS press briefing. Any questions?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행사는 약 45분간 진행되며 순차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순서는 모두발언 이후 질의응답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The session will go on about 45 minutes and sequential translation will be provided. We will begin with opening remarks followed by Q&As and then closing remarks.

그럼 부사령관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Sir, the floor is yours.

LTGEN Winter: 안녕하세요.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engage with you today.

Translator (Elizabeth):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LTGEN Winter: It's been around six months since I had the privilege of assuming the role of the Deputy Commander of United Nations Command, so the opportunity to share some of my observations with you today is extremely valuable to me.

제가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약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기간 동안의 소견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저에게 매우 뜻깊습니다.

LTGEN Winter: You'll have to forgive me when my passion for your beautiful country comes through. My wonderful advisor, Elizabeth, is always amazed that I make my own kimchi while she buys hers on Coupang.

제가 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더라도 너그럽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제 보좌관 엘리자베스는 제가 김치를 직접 담그는 반면 본인은 (김치를) 쿠팡에서 산다는 사실에 늘 놀라곤 합니다.

(Elizabeth/보좌관: Sir, I'm going to mention your Kimchijjigae skill,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 김장, 오이소박이부터 시작해서 다 담그시는 정도로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He absolutely loves Korea—so much so that making everything from kimchi stew and soybean paste stew to homemade kimchi and cucumber kimchi.)

LTGEN Winter: So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day to provide a little bit of my own background with regards to Korea in order to provide some context for the remarks I'll make.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과 관련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TGEN Winter: First I had the opportunity to come to Korea around 15 years ago as an exercise participant on Ulchi Freedom Guardian.

사실 제가 한국에 처음 온 것은 15년 전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참가자로 한국에 처음왔습니다.

LTGEN Winter: And from that time, two things struck me straight away.

그때 저는 두 가지에 즉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LTGEN Winter: One was what an incredibly rich and vibrant country Korea has become.

첫째는 한국이 얼마나 풍요롭고 활기찬 나라로 발전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LTGEN Winter: Because having grown up with the stories of the Korean War, I didn't quite know what to expect.

저는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LTGEN Winter: The second thing that really struck me was that some 70 years on or 65 years on as it must have been then, the continued commit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Nations to the defence of Korea.

두 번째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당시로 치면 65년, 지금으로 치면 7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이 한국 방위에 계속 헌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LTGEN Winter: In subsequent years, I've always fought for opportunities to come back myself and importantly create opportunities for other young Australians to visit Korea.

그 이후로 저는 다시 한국에 올 기회를 얻기 위해 늘 노력해 왔고, 무엇보다 다른 젊은 호주인들에게도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했습니다.

LTGEN Winter: While I'm the only briefer here today, I'm joined by my aide de camp, Lieutenant Robertson, who is the most travelled twenty-something year old anywhere in Korea.

오늘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하는 사람은 저 혼자이지만, 제 부관인 로버트슨 중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곳을 다녀본 20대 청년일 것입니다.

LTGEN Winter: And also joined by my military assistant who, prior to this, commanded one of the

Australian infantry battalions that famously fought during the Korean War and continues that legacy.

또한 제 군사보좌관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는 이곳에 오기 전 한국전쟁에서 이름을 남긴 호주 보병대대 가운데 하나를 지휘하며 그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LTGEN Winter: In previous roles, including as the first Australian Division Commander, I was very proud to bring my headquarters into the Freedom Shield exercises.

이전 보직들, 특히 호주 제1사단장으로 복무할 때 저는 제 사령부를 프리덤 실드 훈련에 참가시킬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LTGEN Winter: As a deputy commanding general at U.S. Army Pacific, I worked very closely with the Korean Army on interoperability across our allies and partners.

또한 미 육군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할 때에는 동맹 및 파트너 간 상호운용성 문제를 놓고 한국 육군과 매우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LTGEN Winter: So when General Brunson, who I had the privilege to work alongside previously, asked me to come here, I did not hesitate at taking the opportunity.

그래서 과거 함께 일할 영광을 누렸던 브런슨 장군이 이곳으로 와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주저 없이 그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LTGEN Winter: So after some thirty-six years in uniform, it's an incredible privilege and the great pinnacle of my career to be here at United Nations Command today.

36년간 군복을 입고 복무한 끝에, 오늘 유엔군사령부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게 엄청난 영광이며 제 경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LTGEN Winter: As someone that has lived and fought in coalitions my entire career, I'm extremely passionate about what United Nations Command represents today. (Inaudible) through reflected remarkably diverse group of nations United Nations Command represents.

저는 군 생활 내내 연합과 다국적 협력 속에서 살아오고 싸워 왔기 때문에, 오늘날 유엔군사령부가 상징하는 가치에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 불가) 유엔군사령부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국가들의 집합을 보여 줍니다.

LTGEN Winter: We have countries from Europe, from North and South America, from Southeast Asia, Australasia and Africa, unique in history. And when those nations came together in July 1950, I think they showed the world what is possible when nations act together.

유엔군사령부에는 유럽, 북미와 남미,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1950년 7월 이들 국가가 함께 모였을 때, 저는 그들이 국가들이 함께 행동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세계에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LTGEN Winter: So when I look at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today and some of those unique challenges that we confront, my assessment as a military professional is that alliances and coali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오늘날의 국제 안보 환경과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를 볼 때, 군인으로서 제 판단은 동맹과 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LTGEN Winter: As we prepare for Ulchi Freedom Shield 2026, very privileged that we will be joined by an additional 70 participants from 11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Member States.

을지 자유의 방패 2026을 준비하는 가운데,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11개국에서 추가로 70명이 참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LTGEN Winter: When I look at each of those 70 additional participants, I see myself 15 years ago.

그 추가 참가자 7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15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립니다.

LTGEN Winter: So it is both an opportunity for us to work alongside our Korean partners to understand how United Nations Command best fits into the security framework today.

이는 우리에게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오늘날의 안보 체계 속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어떤 방식으로 가장 잘 자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LTGEN Winter: But it's equally important for me that each of these 70 additional participants is educated in the beauty of Korean culture and goes home as an ambassador for both Korea and United Nations command.

하지만 저에게는 이 70명의 참가자 모두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귀국 후에는 한국과 유엔군사령부를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So again,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day. I very much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and to our discussion. Gamsahamnida.

다시 한 번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뜻깊은 대화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oderator: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호명 되시면 이름과 소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We'll now move to the Q&A session. Please raise your hand and when selected, state your name and outlet.

Eunji Park (Korea Times): Good afternoon, general. I'm Eunji Park with the Korea Times.

안녕하십니까, 장군님. 저는 코리아타임스의 박은지 기자입니다.

I have actually two questions, but if I may, I'd liked to start with the question about today's briefing itself.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먼저 오늘 기자간담회 자체와 관련된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So we don't usually see a separate UNC briefing ahead of UFS so I was wondering what prompted the

decision to hold one this year.

통상 UFS를 앞두고 유엔군사령부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올해는 어떤 배경이나 이유로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Was there a particular message you want to communicate to the Korean public or the media?

한국 국민이나 언론에 특별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My second question is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this year's UFS will not include an exercise for the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structure led by a Korean general.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UFS에서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체제를 검증하기 위한 연습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How should we understand them?

이러한 보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Does it have any implications for the OPCON transition process or are those separate issues?

이것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과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두 사안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LTGEN Winter: Thank you very much for both those questions and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us engaging with the media today.

두 가지 질문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언론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For me this represents the opportunity, having been in the role for six months, to provide some observations about the importance today of United Nations Command.

저에게 이번 자리는 부임한 지 6개월이 된 시점에서, 오늘날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There is understandably an enormous amount of focus on the ROK-US alliance, which is the bedrock of defence of the Korean Peninsula.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위의 근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But for me, as we prepare for UFS 26, it's an opportunity for me to message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ism within the overall defence of Korea.

하지만 UFS 2026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대한민국 방위 전반에서 다자협력(multilateralism)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 incredible grouping of nations that United Nations Command represents brings a really important component to deterrence, to the ability to de-escalate in crisis, and to have multinational legitimacy in the event of a conflict.

유엔군사령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국가들은 억제력, 위기 시 긴장 완화 능력, 그리고 유사시 다국적 정당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더해 줍니다.

And my excitement for welcoming another 70 participants is part of the opportunity to share that with you.

추가로 70명의 참가자를 맞이하게 된 것에 제가 큰 기대를 갖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 terms of the exercise, I won't go into the details of the operational command and control arrangements.

연습과 관련해서는 작전 지휘 및 통제 체계의 세부 사항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But needless to say, every time we do an exercise it's an opportunity to test and adjust and make sure that our command and control arrangements are fit for purpose.

하지만 모든 연습은 지휘통제 체계를 시험하고 조정하며,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기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My focus from United Nations Command is how do we harness the power of the 18 member states to best support CFC in a defensive scenario.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제 관심은 방어 상황에서 18개 회원국의 역량을 어떻게 결집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And for me that involves a lot of discussion and listening to my Korean counterparts so that we understand where their needs and requirements might be in the future.

이를 위해서는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경청하면서, 앞으로 어떤 필요와 요구가 있을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oderator: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Next question.

Yang, Ji-ho, Chosun Ilbo: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입니다.

I'm Jiho Yang with The Chosun Ilbo.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저희가 UFS는 기본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이다 보니까, 다자적인 성격 보다는 양자훈련으로 기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My question is along a similar line. Since UFS is fundamentally a ROK-U.S. combined exercise, many reporters tend to view it as a bilateral exercise rather than a multinational one.

유엔사가 연합훈련간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떤 종류의 훈련을 하시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 훈련의 다자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 같아서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Within the scope of what you are able to discuss, could you explain what role the United Nations Command plays during the exercise and what kinds of activities it conducts? I think that would help the media better understand the multinational nature of UFS.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 유엔사가 최근 북한의 MDL 관련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y second question is that some South Korean government officials have said the United Nations Command has been quite passive in investigating North Korea's recent Armistice Agreement violations related to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최근에는 북한 전술도로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월선했다는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There have also been recent reports that a North Korean tactical road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extended into the southern side.

이에 대해서 유엔사가 즉각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Could you explain why the United Nations Command has not been able to immediately investigate these reported incidents?

LTGEN Winter: Thank you for your question.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United Nations Command today has two core missions.

오늘날 유엔군사령부에는 두 가지 핵심 임무가 있습니다.

And really that goes to the two parts of your question.

이는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안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The first part of our core mission is the enforcement of the Armistice.

첫 번째 핵심 임무는 정전협정의 이행입니다.

And we've done that incredibly successfully for the last 73 plus years.

우리는 지난 7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임무를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And we've done that through the incredible dedication, perseverance, and commit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every day for those last 73 years.

그 성과는 지난 73년 동안 매일 헌신과 끈기, 사명감을 보여 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노력 덕분입니다.

And having personally had the opportunity to accompany some of the investigative teams as we look at the various accusations or incidents that may occur in the DMZ.

저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의혹이나 사건을 살펴보는 조사팀과 직접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I take enormous pride in the degree of effort that goes into each and every one of those investigations and inspections.

저는 그러한 모든 조사와 점검에 얼마나 큰 노력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On the 18th of this month, we will commemorate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killings of Captain Bonifas and Lieutenant Barrett.

이달 18일에는 보니파스 대위와 배럿 중위 피살 사건 50주년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We'll be joined by the families of Captain Bonifas and Lieutenant Barrett, a timely reminder of the sacrifices that have been made by UNCMAC in enforcing the Armistice.

보니파스 대위와 배럿 중위의 유가족도 함께할 예정이며, 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치른 희생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Any investigations are undertaken very deliberately, very carefully, in some of the most demanding terrain in the world to ensure the safety of all involved.

모든 조사는 관련된 모든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지형 가운데 일부에서 매우 신중하고 세심하게 수행됩니다.

The second par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mission goes to the first part of your question.

유엔군사령부의 두 번째 임무는 기자의 첫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United Nations Command i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contributions of Member States in the event of a contingency.

유엔군사령부는 유사시 회원국들의 기여를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So in terms of what we practice, they're very much based on the needs and requirements that we coordinate with Combined Forces Command.

따라서 우리가 연습하는 내용은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조율한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I think very importantly, one of the roles United Nations Command plays in the event of a crisis is providing is options for de-escalation and the return to Armistice.

매우 중요한 점은, 위기 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수행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긴장 완화와 정전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In terms of what contributions UNC might provide in the contingency, it is a supporting role and responsive to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Combined Forces Command through the Korean government.

유사시 유엔군사령부의 기여는 기본적으로 지원 역할이며, 한국 정부를 통해 전달되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And I think really importantly the exercises are great opportunities for us to investigate what those contributions could be in the future for the defence of Korea.

그리고 이러한 연습은 앞으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그러한 기여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Moderator: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Next question.

Hwang, Joo-young (Korea Herald):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헤럴드 황주영 기자입니다. 먼저 부사령관님 한국으로 오신 걸 환영드리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Juyoung Hwang with The Korea Herald. Good afternoon. First of all, welcome to Korea, General, and thank you for coming here today.

저희가 사실 오늘 이 브리핑 소개받기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었냐면, 앞으로 훈련간의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문 4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Before today's briefing, we were told that you would talk about the United Nations Command's missions and roles during the exercise, but since there weren't many specific details, I'd like to ask about four questions.

다자주의를 강조해주셨는데 실제로 유엔전력국에서 전력이 들어오는 건지 절차만 확인하는 건지.

You emphasized multilateralism. Will forces actually come from the UNC Member States, or is it mainly about confirming the procedures?

그리고 새로운 회원국도 검토가 되는 건지.

And are any new Member States being considered as well?

두 번째 질문은 유엔사 회원국이 제공하는 병력과 장비가 유엔사가 연합사에 지원하는 식으로 제공이 되는데 해당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연합사가 통솔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My second question is that the forces and equipment provided by UNC Member States are provided in support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In that case, would operational control of those forces also be exercised by the Combined Forces Command?

세 번째 질문은 기능적인 부분인데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의 준수고 반면에 연합사의 공식 임무는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격퇴하는 것입니다.

My third question is about the functional aspect. As you mentione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is to uphold the Armistice Agreement, while the official mission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is to deter external aggress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and, if necessary, defeat it.

근데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무력공격을 감행했을 때 연합사가 이를 격퇴해야 할 외부 침략으로 판단한다면 이때 유엔사의 별도의 확인이나 판단이 필요할까요?

If North Korea launches an armed attack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bined Forces Command determines that it constitutes external aggression that must be defeated, would the United Nations Command also need to make a separate determination or assessment?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전협정을 유엔군사령관이 서명했는데 대한민국은 직접적인 서명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And my last question. As you know,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by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but the Republic of Korea was not a direct signatory.

그런데 이제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고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로 이전됐었는데 앞으로 전작권이 전환된다면 한국군의 장성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게 될 때 미래연합사는 어떤 근거에 따라서 정전협정을 준수하라고 적용을 받게 되는지.

The Combined Forces Command was established and operational control was transferred to the CFC. I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transferred in the future and a Republic of Korea general serves as the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er, on what basis would the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be required to comply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LTGEN Winter: Great. Okay, here we go. So to start with for the exercise, we are certainly very open-minded to new capabilities.

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습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새로운 역량에 대해 매우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particular, very interested in looking how United Nations Command can support in new domains such as information, cyber and space.

특히 정보, 사이버, 우주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There is a very important opportunity for us to develop, but again that will be based on the needs identified in our coordination with our Korean partners.

이는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매우 중요한 기회이지만, 그 방향은 한국 측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필요를 바탕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I'll sort of group together your second and fourth questions because they both speak to command and control relationships.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모두 지휘통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And in that regard, I won't sort of address some of the hypotheticals and the maybe's and what ifs because we are very clearly bound by our current mandate where United Nations Command works to Commander United Nations Command.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정이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유엔군사령부는 현행 권한과 임무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we use the exercises to practice how we best bring in United Nations Command supporting capabilities for the defence of the Korean Peninsula.

또한 우리는 이러한 연습을 통해 한반도 방위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역량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숙달하고 있습니다.

And lastly, I'll talk to your question with regards to the Armistice.

마지막으로 정전협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Because during Armistice I think the other critical thing that the United Nations Command contributes to is deterrence.

정전 상태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기여하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요소는 억제라고 생각합니다.

The PACOM Commander Admiral Paparo has a great model where he talks to deterrence.

태평양사령관 파파로 제독은 억제에 대해 매우 인상적인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He talks to deterrence being made up of capability plus willpower and the adversary's understanding of those two.

그는 억제란 능력(capability), 의지(willpower), 그리고 적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And this is what multilateralism brings.

바로 이것이 다자협력이 제공하는 가치입니다.

UNC Member States can bring in additional capabilities to complement other defensive measures on the Korean Peninsula.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은 한반도의 다른 방어 조치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역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nd UNC brings together the willpower, the enduring willpower of 18 Member States.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18개 회원국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brand is one that is well understood by the DPRK.

그리고 '유엔군사령부'라는 존재 자체는 북한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power of the ROK-US alliance, the multilateral coalition of the willing contributes significantly during Armistice to deterrence and has done so effectively for the last 73 years.

한미동맹의 힘에 더해, 뜻을 함께하는 다국적 연합은 정전 상태에서 억제력에 크게 기여해 왔고 지난 73년 동안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Moderator: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Next question.

Lee, Chul-jae, JoongAng Ilbo: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이철재입니다.

Good afternoon. I'm Chuljae Lee with the JoongAng Ilbo.

저는 질문 한 가지와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I have one question and one request.

질문은 유엔사가 재활성화,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을 끝내고 적정화, 리사이징을 최근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y question is that, as I understand it, the United Nations Command has completed its revitalization phase and has recently begun its resizing phase.

지금 적정화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Could you tell us how far along that resizing process is?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는 한국군 참모 파견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Also, a few years ago there were discussions about assigning Republic of Korea military staff officers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I was wondering if there have been any developments since then.

그리고 부탁은 이번에 연합연습이 끝난 뒤에 판문점 미디어 투어를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And my request is that you consider organizing a media tour of Panmunjom after this combined exercise is over.

LTGEN Winter: Thank you very much for the question and the request.

질문과 요청 모두 감사드립니다.

The first thing I would say is United Nations Command has always been a learning organization.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엔군사령부는 항상 배우는 조직이었다는 점입니다.

The United Nations Command today is clearly very different to 1950 or 1953.

오늘날의 유엔군사령부는 1950년이나 1953년 당시와는 분명히 매우 다릅니다.

But it remains entirely committed to the core missions of enforcing the Armistice and coordinating Member State contributions for the defence of Korea.

하지만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회원국들의 기여를 조정하는 핵심 임무에는 변함없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In that regard, United Nations Command of today remains absolutely true to the intent of the 1953 Washington Declaration.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워싱턴 선언의 취지에 충실합니다.

That declaration committed the Member States to the Armistice and, in the event of a contingency, contributing to the defence of Korea.

그 선언은 회원국들이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유사시에는 대한민국 방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How we might do that has continued to evolve over the decades, but the core roles and functions of United Nations Command remain true to those core missions.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수십 년에 걸쳐 계속 발전해 왔지만, 유엔군사령부의 핵심 역할과 기능은 그 기본 임무에 충실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And we look at other conflicts around the world and we utilize these exercises in order to ensure that United Nations Command is fit for purpose for 2026 and beyond in those core missions.

또한 우리는 세계 각지의 다른 분쟁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연습을 활용해 유엔군사령부가 2026년과 그 이후에도 이러한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With regards to access to the JSA and DMZ, United Nations Command won't go into the details, operational details for access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JSA와 DMZ 출입과 관련해서는, 출입 요건과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작전 세부 사항은 말씀드리

지 않겠습니다.

I'd just like to share my recent visit up into the demilitarized zone alongside my good friend, the Vi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LTG) Kwon.

대신 최근 제 좋은 친구인 권 합참차장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ecause when I think of the DMZ, I think of the incredible young soldiers working up on the front line in incredibly austere conditions every day.

제가 DMZ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일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훌륭한 젊은 장병들입니다.

And my commitment to enforcement of the Armistice is to ensure the safety of those great young Soldiers who are up on the front line.

제가 정전협정 이행에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최전선에 있는 그 훌륭한 젊은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I really encourage the media to help tell their stories because it's truly inspirational.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General Kwon and I had the opportunity to have lunch with three of these great young men.

권 차장님과 저는 그 훌륭한 젊은 장병 세 명과 함께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And when they finish their service, one is going off to be an engineer, another one a music producer, and the third one a priest.

복무를 마친 뒤에는 한 명은 엔지니어가 될 예정이고, 다른 한 명은 음악 프로듀서, 또 다른 한 명은 성직자의 길을 걸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And I think they're going to be great leaders for the Korean community, all the more so because of their sterling service up on the front line.

저는 이들이 최전선에서의 훌륭한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사회의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 when I think of enforcing the Armistice, I think of ensuring the safety of great young men like these. Thank you.

그래서 제가 정전협정 이행을 생각할 때, 결국 이런 훌륭한 젊은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Moderator: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유정 기자님.

Lee, Yoo-jung, JoongAng Ilbo: 안녕하세요. 또 중앙일보라서 죄송합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Apologies for another JoongAng Ilbo question. I'm Yoojung Lee.

제가 궁금한 게 현재 한미 간에 저작권 전환 협의를 진행 중인데 제가 좀 불분명하게 이해한 부

분이 있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I have a question regarding the ongoing discuss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the OPCON transition. There are a few aspects that I don't fully understand, so I would appreciate your clarification.

현재 논의 속에서 전환 시에 유엔사와 미래연합사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Under the current discussions, how should we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after the transition?

현실적으로 유사시에 유엔사가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In practical terms, in the event of a contingency, would the United Nations Command come under the command of the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led by a Republic of Korea general?

다른 질문 하나는 정전협정 체결이 된 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남과 북, 유엔사 간의 군사분계선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현재 북한군이 MDL을 넘어서 남쪽에 지뢰를 놓는 행위가 있고 이는 남측 입장에서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My second question is that so much time has passed since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that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appear to hav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North Korea has recently been laying landmines south of the MDL,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siders a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유엔사는 이 MDL 불일치를 유엔사 기준으로 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걸 일치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Does the United Nations Command believe that its interpretation of the MDL should be the governing standard, or are you making efforts to reconcile these different understandings?

북측과는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could you also explain what kind of communication, if any, you are maintaining with North Korea on this issue?

LTGEN Winter: Thank you for your question.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I'd start by saying that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vestigates every alleged violation extremely carefully and diligently.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엔군사령부는 제기되는 모든 정전협정 위반 의혹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성실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Fundamentally, the Armistice provided a military arrangement for the separation of forces and the mechanisms for de-escalation and deconfliction.

근본적으로 정전협정은 군사력 분리를 위한 군사적 장치와 긴장 완화 및 충돌 방지를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That separation of forces and that capacity for communication to enable de-escalation and deconfliction is incredibly strong today, just as it was in 1953.

그러한 군사력 분리와 긴장 완화 및 충돌 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 능력은 1953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매우 견고합니다.

And while I know there is much conjecture in the media and elsewhere, United Nations Command deals in facts and I have incredible confidence in our investigative teams who are out on the front line every day.

언론과 여러 곳에서 많은 추측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며, 매일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조사팀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And these investigations are incredibly challenging because they move through some of the most challenging terrain anywhere on the earth.

이러한 조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지형을 이동하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임무입니다.

As we've seen with the recent floods, there are mines that move, and we have to be incredibly careful and deliberate with how we undertake each of these investigations.

최근 홍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뢰는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조사를 매우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But like I have shared, I have incredible confidence in the work that's being done to enforce the Armistice through the existing framework mechanisms.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체계와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업무를 저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And to your question regarding post-OPCON transfer, I won't get into the hypotheticals because for us the importance of our existing mandate reporting to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mains critical to our core missions of the Armistice and Member State coordination.

그리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체계 아래에서 부여된 현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전협정 이행과 회원국 조정이라는 우리의 핵심 임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I'd say that the Armistice enforcement is one of the world's great success stories.

저는 정전협정의 이행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It has been and remains the incredible foundation on which the prosperity and the flourishing democracy of modern Korea is built.

정전협정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번영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I'm incredibly proud to play a small part in the continued enforcement of that Armistice.

저 역시 그 정전협정을 계속 이행하는 데 작은 역할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

럽게 생각합니다.

Perhaps the most powerful reflection on the success of the Armistice is when returning Korean War veterans visit your country for the first time.

정전협정의 성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오랜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I recently hosted a number of Korean War veterans. They come back, they see modern Korea, and they reflect on the blood and sacrifice, and they say it was worth it.

최근에도 여러 참전용사들을 맞이했는데, 그분들은 현대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피와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that is not the universal experience for veterans in conflicts across the world to reflect so positively on the outcomes of their sacrifices.

세계의 다른 전쟁 참전용사들이 모두 자신의 희생의 결과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돌아보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I consider that those veterans of the Korean War have passed their torch to us to continue their legacy in order to ensure safety and security in defence of Korea today.

저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유산을 이어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Moderator: 이제 시간이 점점 거의 다 되가고 있는데 질문을 마지막 질문 한두개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We're just about out of time now, so we'll take one or two final questions.

Son, Sung-min, MBN: MBN 손성민 기자입니다.

Good afternoon. I'm Seongmin Son with MBN.

지난달에 부사령관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억제도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Last month, you said that the war in Ukraine showed that deterrence can also fail.

다자주의도 말씀 주셨으니, 어떤 교훈을 우리가 시사할 수 있고 이번 연습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Since you have also spoken about multilateralism, could you explain specifically what lessons we can draw from that and whether you plan to reflect those lessons in this exercise?

LTGEN Winter: Thank you for a great question.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Look at the war in Ukraine and there are a number of key lessons that we can take from that.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And the first one, as you identify that I've reflected on previously, is that it's a lesson that deterrence can fail.

그리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첫 번째 교훈은 억제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d my response to that is twofold.

이에 대한 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Firstly, we need to ensure that we invest in those deterrent capabilities, namely hard power capability and the willpower of the many.

첫째, 우리는 그러한 억제 역량, 즉 하드파워 역량과 다수 국가의 의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And the second thing I take away from it is, in the words General Brunson often uses, there is no substitute for readiness.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얻은 교훈은, 브런슨 장군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준비태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And that's why exercises like UFS are so important for the defense of Korea.

바로 그렇기 때문에 UFS와 같은 연습이 대한민국 방위에 매우 중요합니다.

For many years now, the ROK-U.S. Alliance has used the catchphrases "Fight Tonight" and "Katchi Kapshida," "We Go Together."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Fight Tonight"과 "같이 갑시다", 즉 "We Go Together"라는 구호를 사용해 왔습니다.

If I add to that the UNC motto of "Under One Flag," you have a potent mix of the willpower of the many and the readiness of those nations to defend Korea.

여기에 유엔군사령부의 모토인 "Under One Flag" (하나의 깃발 아래) 를 더하면, 다수 국가의 의지와 대한민국을 방어할 준비태세가 강력하게 결합됩니다.

"Katchi Kapshida, Fight Tonight, Under One Flag." That's a pretty strong sentence.

"같이 갑시다, Fight Tonight, Under One Flag." 상당히 강력한 문구입니다.

Fundamentally, like-minded countries being together and standing up to aggression, just as they did in 1950, is the most powerful deterrent message that we can provide.

근본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함께하고, 1950년에 그랬던 것처럼 침략에 맞서는 것이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억제 메시지입니다.

And that's my passion for how United Nations Command supports the efforts to ensure a peaceful, free and prosperous Korea today.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유엔군사

령부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제가 열정을 갖는 이유입니다.

Moderator: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꼭 질문 하시고 싶으신 분이 마지막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We're almost out of time, but if there's anyone who has a question they'd really like to ask, we'll take one final question.

Lee, Jong-yoon, Financial News: 파이낸셜뉴스 이종윤입니다.

I'm Jongyoon Lee with the Financial News.

적극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providing this opportunity for open and active communication.

유엔사의 UFS 시나리오의 발전 방향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I'd like to ask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s UFS scenarios.

최근 현대전은 우주, 사이버, 전자전이 결합된 다영역 작전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Modern warfare is rapidly shifting toward multi-domain operations that integrate space, cyber, and electronic warfare.

전통적인 정전 관리, 협정 관리를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다영역 연합 전술 환경에서 유엔사가 한미연합군과 상호운용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실무책임자로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Beyond the traditional management and enforce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I'd like to hear your views, as the official responsible for this work, on how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tends to develop interoperability with the ROK-U.S. Combined Forces in a future-oriented, multinational, multi-domain operational environment.

LTGEN Winter: Thank you for your question.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I'd say from the outset that interoperability is one of the key focal areas every time we conduct an exercise here in Korea.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호운용성은 우리가 이곳 한국에서 연습을 실시할 때마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핵심 분야 중 하나입니다.

And while I won't go into the details of the operational scenario for reasons of operational security, I will say that we are learning lessons every day.

작전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작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매일 새로운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The threat continues to evolve, therefore we cannot stand still.

위협은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체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Now we know that North Korea has Soldiers who have engaged in the conflict in Ukraine and have no doubt brought lessons home from that.

현재 우리는 북한군 장병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얻은 교훈을 북한으로 가져갔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We utilize every opportunity to exercise to ensure that we are ready for the sort of evolving threats that are represented by conflicts such as Ukraine or Iran.

우리는 우크라이나나 이란과 같은 분쟁에서 나타나는 진화하는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연습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Importantly, we are seeking to have interoperability across all domains.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Moderator: 네 부사령관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Sir, would you like to offer a few closing remarks?

LTGEN Winter: Yes, very briefly.

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breadth and scale of your questions.

폭넓고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level of commitment and interest of the MND Press Corps is very evident to me.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높은 관심과 헌신이 저에게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Your questions help me understand what is important so I can continue to learn and build that into my professional journey.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앞으로도 배우고 제 업무에 반영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In closing, I'd just like to thank the incredible hospitality and friendship that I've developed with my colleagues across the Joint Chiefs of Staff, CFC, MND, and MOFA since my arrival here.

끝으로, 한국에 부임한 이후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CFC), 국방부(MND), 외교부(MOFA)의 동료들로부터 받은 따뜻한 환대와 우정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The importance of our excellent open dialogue, frank discussions, across the interagency within UNC and across the commands has been really refreshing.

유엔군사령부 내부는 물론 여러 기관과 각 사령부 간에 이루어지는 열린 대화와 허심탄회한 논의는 저에게 매우 의미 있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A previous commander once told me that it's not about relationships or even allies and partners—it's about friendships.

예전에 한 지휘관께서 제게 "중요한 것은 관계도, 동맹이나 파트너십도 아니고 우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And the ability to get to know, share meals, and travel with some of my Korean military colleagues has been one of the most rewarding parts of my career.

한국군 동료들과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현장을 다니며 시간을 보낸 것은 제 군 생활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경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That's why it's important for me to create similar relationships with much younger people when they come on exercises like UFS, so that they have that same friendship and trust that will 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ll their nations in great stead into the future.

그래서 저는 UFS와 같은 연습에 참가하는 젊은 장병들과도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같은 우정과 신뢰를 쌓아 앞으로도 각국 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thank you again, and I look forward to engaging with you in the future.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Moderator: 다시 한번 오늘 긴 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공보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이후 정리한 번역본은 빠른 시일내에 단톡방에 공유드리겠습니다. Thank you again for joining us today. So if you have any follow-up question, please contact our office. We'll share the translated note in the group chat as soon as able.

LTGEN Winter: Thank you. Drink more water before you go back outside—it's hot.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물 많이 드세요. 날씨가 덥습니다.